최진석의 횡설종설

혁명과 반항

동양에서 혁명의 원초적 표현은, 세상의 철리(哲理)를 품고 있어서 점치는 데 사용되었던 '주역'(周易)에 나온다. '혁괘'(革卦)에서 바로 '혁명'(革命)의 근본적 의미를 보여준다. '혁'(革)은 '확 뒤집어 바꾼다'는 뜻이다. 뒤집어 바꾸는데 소소하고 변두리를 이루는 주변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命)을 바꾼다.

'명'은 운명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듯이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지배력을 뜻한다. 현실적으로는 시대정신이거나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 내지는 세계관 정도의 것이다.

왜 반드시 바꿔야 하는가? 어느 지경에서 꽉 막혀 극단적 비효율만 발생되기 때문이다.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사라져 버리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혁괘'를 '곤괘'(困卦) 다음에 배치한다. 곤괘는 못 아래에 물이 있는 모습(澤水困)으로 형상화된다. 못(澤)을 말하면서 연못(淵)을 떠올린다면 오해하기 쉽다. 연못은 물로만 채워져 있지만, 못은 불로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갈대나 수초들이 위로 자라고 있는 습지 같은 것이다. 그 습지에 물이 있지 않고, 습지 밑에 물이 있으니, 물이 밑으로 다 빠져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형국이다. 못 위에 살아 있는 생명들이 모두 곤궁한 꼴이다.

이런 곤궁함을 당한 이유는 잘 나갈 때, 경계하지 않고 방만하여서이다. 잘 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승괘(升卦) 다음에 곤괘가 배치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비록 곤궁함에 처해 있더라도, 이 곤궁함을 야기한 원인을 직시하고, 깊은 반성을 하여 힘을 추스르면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곤괘 마지막 효(爻)에서 말한 내용이다. 후회하고 반성하면 이제 서서히 풀리게 되어 조금씩 희망의 물이 샘솟게 된다.

물이 샘솟아 희망을 만들어내니 바로 우물에 물이 차는 형국이라. 아래로 빠져버린 물을 위로 길어올려 회복해낸다. 정갈한 우물이 보여주는 이 회복의 기상이란, 그래서 곤괘는 정괘(井卦)로 이어진다. 지난날의 곤궁함을 반성하고 다시 힘을 내어 노력하면 우물에 다시 물이 차오르듯 새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독재 다음에 왔던 민주화의 열기와 성취들, IMF 이후의 경제 회복 등등이 우물에 새로 물이 차오르는 형국이리라. 우물에 물이 차오를 때, 처음에는 마실 수도 없고 미약하지만 점점 벽돌을 쌓아 견고히 하면(六四) 우물은 달고 맑아지며 시원한 샘물을 제공하게 된다.(九五) 그런데 이런 좋은 발전을 지속하려면 우물을 덮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정괘(井卦)의 마지막 효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말하기를 "우물을 거두어 덮지 않으니 믿음이 있어서 크게 길하리라"고 한 것이다. 만일 우물을 덮어버리면, 우물의 숨길은 답답해져서 다시 막히는 형국이 되어버리니 결국은 뒤집어버려야만 하는 단계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혁괘(革卦)는 못 아래 불이 있는 모습이다.(澤火革) 밑에서 불을 질러 못을 태워버리니 바로 새 판을 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혁명이다. 밑에서 물을 끌어 올려 겨우 우물을 살려 놓았는데, 왜 우물 뚜껑을 덮어 숨통을 막아 새롭고도 진보된 발전을 막아버릴까? 이것이 혁명을 끌어오고, 혁명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난 여기서 우물에 뚜껑을 덮는 일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

많은 진보적 노력이 왜 혁명으로 완수되기 어려운가? 어느 시점에서의 진보가 '뚜껑'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진보를 이루던 시각과 노력이 일정 부분 진보적 변혁을 이루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그 시각과 그 노력이 바로 '뚜껑'이 되어서 스스로의 활동을 덮고 제한하기 때문이다.

'완장'이 되어버린다고 해도 말이 될까? 진보적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여 투쟁할 때, 대오를 이탈하는 행동가는 당연히 변절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진보적 노력의 어느 단계에서 질적인 변화를 생산하여야 할 때, 변절은 필연적이다.

한고조 유방이 고전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말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충고를 들은 일도 있지 않은가. 천하를 차지하고 나서도 여전히 천하를 차지하려고 돌진하던 때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으로 권좌에 오른 대통령이 변절을 거쳐 국가 경영인으로의 변신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았다. 변혁의 완성은 변혁가가 스스로에게 '뚜껑'을 덮지 않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절을 감행하면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혁명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따라 계속 변절하는 힘의 활동인 것이다. '뚜껑'을 덮고서 하던 싸움이나 계속해대려는 사람은 혁명가일 수 없다. 완장 찬 '반항아'일 수는 있다. 〈서강대 교수〉

종교칼럼

나의 앞길을 열어가는 묘법

송 지 은
원불교 교무·광주원음방송 편성제작팀장

참으로 오랫동안 원불교 성직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요가를 지도해 온 교무가 있다. 언제나 편안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는 그 교무가 언젠가 자신이 요가를 처음 배우게 된 동기를 들려주었다.

한창 교화현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닐 32살 나이에 양쪽 팔을 들어올릴 수도 없고, 물건을 들지도 못하고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는 병에 걸렸다고 한다.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가 어려웠던 당시, 담당의사는 요가나 운동을 꾸준히 하며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 교무는 그때부터 요가를 배우기 시작해 17년이란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요가를 통한 운동을 했다고 한다. 어깨통증과 사투를 벌이며 꾸준히 요가에 전념한 결과 이제는 거의 완치수준에 이르렀고, 덕분에 교무들과 일반인들까지도 지도하는 수준급 요가전문가가 되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과 해로운 환경에서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은혜를 발견한 것이다.

원불교 경전에 은생어해(恩生於害) 해생어은(害生於恩)이라는 법문이 있다. 은혜가 해로움에서 나올 수 있고, 해로움이 은혜에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여건,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노력하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때로는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욕심에 치닫게 해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할 것이다.

20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수술을 두 차례나 한 젊은 청년교도의 이야기는 지금도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원불교에 출가해 처음 교화현장에 나왔을 때 당시 어린이회장이었던 그 교도는 10여 년이 지나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 고통스런 항암투병을 하고 있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은 그 청년교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상상하며 병원을 찾아갔을 때 나는 뜻밖의 상황에 놀라고 말았다. 머리를 빡빡 깎고 수술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 청년교도는 나를 보자마자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얼싸안고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수술한 직후에는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이젠 많이 가라앉았고, 병문안을 온 어느 친구가 머리를 빡빡 깎으니 인물이 더 살아난다고 했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 청년교도는 병원에 있으면서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청년교도의 부모는 오히려 부모가 환자인 자녀에게 위로받고 있다며, 환자가 너무도 의연한 자세로 모든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정성을 다하고 있어 오히려 가족 모두 힘을 얻고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 병이 완쾌되면 작은 카페에서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청년교도의 꿈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기보다 긍정적인 출구를 먼저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이 평소 선행되어야할 거 같다.

기회가 위기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위기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해 위기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앞길이 열리고 남의 앞길도 열어주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기고

원석을 보석으로 가꾸는 교육

박 재 룡
강진군청 기획홍보실장

5%의 엘리트가 인류발전을 이끈다는 말은 이견이 존재하지만 일정 부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초 직원 정례조회에서 '강진군 어학연수단'의 사례가 발표돼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한 달 동안 어린 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단돈 400만원에 특별한 어학연수를 마쳤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미국에 가는 왕복 항공료만 해도 250만 원 이상인데 150만 원으로 과연 한 달 동안의 미국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번에 방문한 미국 스노콜미시는 지난 2009년 강진군과 교육교류의향서 체결, 2010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해 현재까지 6회 동안 100여 명의 학생이 상호 교환 방문하는 자매도시다. 학생들은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서 한 달 동안 서양문화와 음식 등을 접하며 다양한 경험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얻고 있다. 또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하며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주민들이 매주 주말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려 문화체험을 마련해줬다는 사례발표에서 자매도시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현지학교를 방문해 일일교사가 되어 한국을 소개하고, 공연도 펼쳐 잊지 못할 추억도 쌓았다.

민간단체인 자매결연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 캐나다의 밴쿠버와 휘슬러, 워싱턴 의회의사당,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방문토록 했다.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소감발표를 보면서 한 달 만에 부쩍 성숙해진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진군은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해 소감발표회를 한 학생들을 '학생 영어부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키우고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최근 지역 거점고등학교를 지정해 강진학사 운영, 장학금 지원 분야 확대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진정한 교육은 미래세대가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집을 짓는 일이다. 오늘 당장 사용하고 끝날 임시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원석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 바로 교육의 역할이다.

행정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다. 지자체가 전시효과를 노리고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군민에게 다가가는 교육행정, 군민에게 필요한 자매결연을 할 때 잘사는 강진의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이들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배려해야 한다. 인재양성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 투자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어린 후학들에게 과감한 투자는 미래의 성장동력과 함께 행복한 강진시대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

건보료 적게 내려 위장취업하는 재산가 찾아내야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부인데도 한달 건강보험료가 2만2200원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재산이 50억~100억원인데도 역시 건강보험료를 겨우 2~3만원 수준으로 낸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나?

하지만 이건 사실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런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몇푼 덜 내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놓고 직장보험료로 납입하기 때문에 이런 쥐꼬리만한 보험료만 내는 것이다.

이렇게 50억 이상 재산가이면서 직장 건강보험료로 내는 사람이 7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수십억 재산을 갖이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 엄청난 부자인데 이렇게 조사된 50억 이상자 말고, 50억 이하이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가진 직장인 건강보험자가 얼마나 많을까.

정말 자본주의 제도상의 허점, 또다른 방식의 편법이 아닐수 없다.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의 헛점 때문이다. 만일 100억 원대 재산가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보유재산 기준으로 월 24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소액만 낸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고소득, 고액 보유 부자이면서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철저하게 건보료를 물려야 한다. 지인이 경영하는 어떤 회사에 다닌는걸로 위장취업하는게 가장 흔한 숫법이라지만 이걸 그냥 방치해 둔다면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다.

근로자 5인 미만의 병원 의원과 약국, 법률사무소 등의 운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가 70%가량 줄어든 사례는 무려 60만건이나 된다니 이런 양심불량을 철저하게 찾아내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 ▲이준호·광주시 북구 운정동

社 說

유라시아 횡단철도 호남축 연결시켜야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해 유라시아 동북부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과 유라시아 컨퍼런스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실현방안으로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구상하는 노선은 부산을 출발해 나진~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울란우데~모스크바~베를린~파리를 연결, 북한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고속 물류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수송 경쟁력은 상당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1만9000km를 배로 가면 27일 걸리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목포에서 출발하는 호남축이 정부나 정치권의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남북한 연결 철도는 '부산~신의주축'과 '목포~나진축'을 기반으로 한 'X자형' 구상이었다.

그러나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목포~나진축이 누락되면서 국토의 서남권이 소외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1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호남축 포함 촉구를 위한 합동공청회'를 여는 데는 이러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는 북방 물류시대와 동북아 경제권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서남권 물류가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호남선을 대륙 연결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수립될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목포를 시발점으로 하는 호남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시·도와 지역사회도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벌써부터 불·탈법 난무하다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 개입을 비롯한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역의원 선거는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이 잇따르고, 기초단체장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정당 공천 배제에 따른 무소속 후보의 난립으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19일 현역 시장을 위해 우호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 명을 모집한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지난 8일 오후 해남군 황산면 모 식당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지자인 A씨가 참석자 6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됐다.

참석한 주민 가운데 음식 대접을 받은 49명은 선거법에 따라 1인당 5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고흥군에서도 주민 64명이 지난해 추석 때 군의원 B씨로부터 1만4900원짜리 선물을 받아 한 사람당 1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선거관이 과열되면서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180여 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광주 29건·전남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광주 4건·전남 5건에 달했다. 선거가 70여 일이나 남았는데도 이 지경이니 선거전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선거관이 혼탁해지는 것은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크다.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 데야 줄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역시 공직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공명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다. 선관위와 사법당국도 관권선거를 비롯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히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사진 주인공 찾기

1980년 5월 20일. 기사들은 버스 10여 대와 택시 200여 대를 앞세우고 전남도청 앞으로 몰려왔다. 선두에 선 버스 지붕 위에 올라선 한 남자가 보였다. 검은 양복 차림의 20대 청년은 온 몸으로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 모습은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후 이 사진은 '오월 광주'의 상징이 됐다.

광주일보사는 2007년 오월, 사진 속 주인공들을 찾아 보도한 적이 있었다. 추적 끝에 27년만에 '태극기 청년'을 찾아냈다. 한국도로공사 장성영업소에 근무하는 박대현(55)씨였다. 버스에 타고 있던 그는 누군가 "버스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자"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지붕으로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었다. 시민들의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광주일보는 계엄군에 맞아 피흘리는 남편과 그를 따라가는 아내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 주인공을 찾아냈다. 주먹밥을 만들던 시장 아주머니들의 현재 모습도 보도했다.

1945년 8월14일(현지 시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만 명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때 해군복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간호사 복장을 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끌어안고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 이 모습은 사진기자 앨프레도 에이젠스태트의 카메라에 담겼다. '라이프' 지 표지에 실린 이 사진은 '종전의 키스' 등으로 불리며 명성을 얻었다.

간호사의 신원은 1979년 밝혀졌다. 이디스 세인은 에이젠스태트에게 편지를 보내 사진 속 여성이 자신임을 밝혔다. 그녀는 "그가 국가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키스에 응했다"며 "키스를 하는 6~7초 동안 무아지경이었다"고 회고했다.

반면 자신이 사진 속 남자라고 주장한 이는 10명이 넘는다. 2007년 ABC 방송은 당시 18살이었던 글랜 맥더피가 주인공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사진 속 포즈를 재연했다. 안면식별 전문가도 투입됐다.

최근 글랜 맥더피가 86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이디스 세인은 2010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사진은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다. 그게 사진의 힘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